

19세기 우리 시가문학의 사상정서적내용에서 나타난 근대적요소

강복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느 시대의 문학예술이든지 빈터에서 발생발전할수 없다. 선행세대가 이룩하여놓은 민족문화유산을 디딤돌로 삼고 그 진보적이고 인민적인 내용과 형식을 옹계 이어받을 때에만 문학예술을 자기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발전시킬수 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6권 145~146페이지)

봉건말기 시가문학에 나타난 근대적요소를 깊이있게 해명하는것은 19세기 시가문학의 문학사적의의를 정확히 밝히고 우리 나라 근대시가문학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을 과학적으로 해명하는데서 일정한 의의를 가진다.

이 시기 시가문학은 이전시기의 시가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반봉건적인 시대적기운과 근대적로동속에서 시달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형상들, 봉건으로부터 근대사회에 이행하는 과도적단계의 각이한 인간들의 지향세계를 사실주의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근대적요소를 나타내게 되었다.

19세기 시가문학의 사상정서적내용에서의 근대적요소는 무엇보다먼저 자본주의적고용로동과 그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지향세계를 반영한 작품들에서 찾아볼수 있다.

19세기에 우리 나라에는 봉건지배계급의 가혹한 억압과 착취로 토지에서 류리되어 광산이나 수공업적공장이 있는 《점마을》들에 모여들어 일하는 농민들과 도시에서 살면서 근대적인 자유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자유고용로동에 대한 문학적형상은 로동력의 자유로운 이동과 로동력밖에 가진것이 없는 고용로동자의 증대와 로동력의 상품화를 통한 고용로동착취가 이루어질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가는 변화된 현실에 대한 예술적확인으로 된다.

민요 《풍구타령》, 가사 《동점별곡》 등은 광산에서의 자본주의적고용로동에 시달리는 인간들의 지향세계를 반영한 작품들이다.

민요 《풍구타령》에서는 살길찾아 해매다가 고진동광산(갑산동점)에 모여들어 근면한 로동으로 생활난을 타개하고 행복을 마련하려는 류랑민들의 지향을 노래하고있다.

남은것이라고는 로동력뿐인 류랑민들의 념원은 류랑생활을 마치고 어서 고향으로 돌아가 처자를 만나 행복한 생활을 누리려는것이였다.

작품에서는 쓰러지면서 풍구를 부는 광산로동의 고달픔과 부모, 동생을 그리며 피로움에 모대기는 로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처지를 반영하였다.

리용식의 가사 《동점별곡》에서도 봉건말기 고진동광산에서 자본주의적인 고용로동에 시달리는 광부들의 고통스러운 처지를 반영하고있다.

작품에서는 19세기초에 고진동광산에 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어 수천호가 자리잡은 광산촌이 형성되어 광산개발을 시작하던 초기의 실태가 구체적으로 묘사되고있다.

...

무동별장 황선달은 고진동의 무동할제
 성영주와 혈주들은 동서남북 모여들어
 편수 별패 연군들은 별패같이 날아들어
 백호등에 혈을 파고 개암같이 출입할제

...

가사에서는 이 시기 동광에서의 생산이 채광에서나 제련공정에서 모두 분업에 기초한 협업으로 진행되었고 광산의 분업상태가 자본주의적공장제수공업의 발전된 면모를 뚜렷이 갖추고있었다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뿐만아니라 작품에서는 갱건설에 발파법과 여러가지 동발이 적극 리용된 사실을 비롯하여 당시의 로동방법을 예술적으로 반영하였다. 그리고 당시 광산에서 국가가 동을 사들이던 방법과 그때 리용된 지불수단에 대하여서도 생동하게 반영되어있다.

이와 함께 작품에서는 죽음의 계선을 넘나들며 고역에 시달리는 인민들의 비참상과 고용로동의 위험성에 대하여 폭로하고있다.

리양유의 시 《짐군의 탄식》은 이와는 달리 상품화폐관계가 확대되고 상품경제가 발달되어가는 도시에서 근대적인 자유고용로동에 시달리는 인간의 형상을 보여준 작품이다.

작품에 형상된 도시자유민들의 생활처지도 역시 광산로동자나 다름바 없었다.

가련하구나 구차한 짐군의 신세
 티만한 샅으로 여러 식구 먹이자니
 언제나 먼지와는 한굴에서 덩굴면서
 주름살뿐인가 머리가 다 빠졌네
 장마당과 거리를 몰려서 다니다가
 장사군의 큰 짐들은 도맡아지고
 돈 생기는 곳이라면 가리지 않건만
 받아주는 샅전은 줌에도 안차더라

시에서는 큰 짐지고 멀리 가는 피로움, 《설한풍 부는 날엔 살결이 갈라지고/삼복더위에는 땀으로 목욕하》는 짐군의 고달픈 생활모습을 생동한 세부의 진실한 반영을 통하여 형상하고있다.

시에는 이와 같이 새로운 경제관계의 변화에 따르는 도시의 빈민—자유로동자의 형상이 반영되고있다.

정약용의 시 《탐진농가》는 봉건말기 도시와 농촌에 대대적으로 늘어난 류량민의 일부가 농업생산에 고용되던 실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시에는 가족로동력으로 며칠간의 모내기에 동원되어 단기고용로동을 하는 사람들의 형상을 보여주고있다. 시를 통하여 당시 농촌에서 고용로동제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품값의 형태에는 돈모, 밥모라는 식으로 현물을 주는것과 돈으로 주는것이 있었으며 돈으로 주는것을 더 바랬다는것을 알수 있다.

19세기 시가문학의 사상정서적내용에서의 근대적요소는 다음으로 사회적진보와 과학에 대한 개혁적지향과 평등사상을 반영한 작품들에서 찾아볼수 있다.

19세기 사회적진보와 근대적인 문명발전에 대한 지향은 실학자들과 그들의 영향을 받아 실학적경향이 강한 작품들을 창작한 신위, 리학규 등 진보적시인들의 시문학에서 중요한 사상정서적지향을 이루고있다.

신위는 경제분야에서의 폐단과 새롭게 발전하는 자본주의적관계를 옹계 발전시키지 못하여 더욱더 어지러워진 봉건사회제도를 비판하면서 그 불합리성을 극복하려는 개혁적지향을 시에 담아 노래하였다.

그가운데서 광산업의 발전을 주장한 작품들이 주목된다.

금, 은, 동, 철광 때에 따라 채굴함이
농사에 방해되지 않는다고 나는 말한다네
엄형을 가한다고 참채 금지할소냐
재물뭉는 권리는 개인에게 속한것이리

우의 시는 광산을 진흥시키고 참채를 장려할데 대한 견해를 반영한 신위의 《잡서》(50수)의 제19수이다. 신위는 광산업이 경제의 한 부분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실태를 시작품들에 민감하게 반영하여 자유로운 광업활동을 장려하고 발전시키는것이 마땅한 리치라는 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는 참채(개인들이 몰래 광물을 채취하는것)하는자들에 대해 형벌을 주지 말고 그들이 농한기에 채굴하도록 하고 그 일부분은 조세로 바꾸어주어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킬것을 주장하였다.

신위는 《잡서》에서 역시 화폐제도의 폐단과 그를 극복하려는 개혁적지향을 민감하게 반영하였다.

화폐의 대량적인 생산과 질이 낮은 금속화폐의 생산 등 통치배들의 더 많은 리윤추구로 하여 문란해진 화폐제도실태를 비판하고 새로운 화폐를 제조할것을 주장한 제12수, 화폐를 쌓아두지 말고 유통시킬데 대한 견해를 주장한 제13수 등은 그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이 시기 시문학에서는 과학을 근대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지향을 구현한 작품들도 주목된다.

과학을 근대적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지향은 김정희의 시문학에서 뚜렷이 찾아볼수 있다. 그는 자기의 시에 근대적인 과학지식을 습득하고 그 폭을 넓히려는 지향을 반영하였다.

시 《직산군수를 보내며》는 우리 나라의 금석학과 고고학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려는 학자로서의 그의 열렬한 학문탐구정신, 진지한 실사구시적태도가 구현된 작품이다.

김정희는 당시 학계에서 잘못 인식되어오던 학술적문제들을 새롭게 정립한 견해도 시에 담았다.

그의 시 《로련이 력산을 위하여 요사한 중의 왕심비라는 그릇된 설을 알려주다》도 북한산비를 발견한데 기초하여 지난 기간 무학대사비로 잘못 전해지던 이 비를 진흥왕순수비로 고증한 자기의 새로운 연구성과를 그대로 시화한 작품이다.

고증적태도와 근대적지식에 대한 갈망을 반영한 작품들뿐만아니라 사물현상의 과학적리치를 그대로 시화한 작품들도 근대적인 과학발전에 대한 시인의 관심을 잘 보여주지고있다.

이 시기 시문학에서 근대적평등사상을 구현한 작품들도 주목된다.

이 시기 진보적인 작가들은 신분적등급제도와 문벌제도의 부당성에 대한 옳은 인식에

기초하여 평등을 주장하고 문벌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대표적으로 신위의 《잡서》 제4수를 들 수 있다.

작품은 봉건사회에서 사람들을 《사, 농, 공, 상》 등 《4민》으로 구분하고 차별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신위는 시에서 인간은 《본래 평등》하다는 데로부터 출발하여 가장 천시당하던 상인, 농민, 수공업자에 대한 차별을 반대하고 그들을 《사》의 우에 놓고 있으며 《4민》가운데서 가장 못자리인 량반선비들을 《저릿선비》라고 조소하고 있다.

김려도 장편서사시 《방주의 노래》에서 사회의 가장 최하층신분인 백정과 량반간에 혼사를 맺는 이야기를 통하여 사람은 백정이건 량반이건 신분에 관계없이 평등하다는 인간평등에 관한 선진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사람의 인격과 가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사람을 신분에 따라 갈라놓고 천시하던 봉건적 신분제도의 부당성을 폭로하였으며 사람은 귀천에 관계없이 서로 평등하다는 선진적인 견해를 표명한데 이 시의 진보성이 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평등하다고 주장하는 작가의 선진적인 입장은 봉건적 신분제도에 대한 부정이고 항의이며 이것은 온갖 낡고 뒤떨어진 것을 타파하고 새로운 근대적인 것을 지향해나갔던 당대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 시대적 흐름의 반영인 것이다.

19세기 시가문학의 사상정서적내용에서의 근대적 요소는 다음으로 화폐관계의 발전의 영향과 도시주민들의 자유로운 생활지향을 반영한 작품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우선 화폐관계의 발전이 인간과 그 생활에 미친 영향을 민감하게 반영한 작품들에서 나타났다.

이 시기 시가문학에서는 인간의 가치가 신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돈에 의하여 결정되기 시작 하던 시대적 변화과정이 생동하게 노래되고 있다.

잡가 《초당문답가》에서의 《우부가》에서 부모형제도 몰라보고 《입구멍이 제일이라고 돈 날 노릇》만 하는 우부의 형상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흔히 나타나는 수전노의 형상이다. 돈에 의하여 모든 것이 좌우되는 이러한 특징적인 형상은 한자시에서도 나타났다.

김삿갓(김병연)은 시 《돈》에서 화폐관계의 발전이 인간과 사회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실주의적으로 일반화하면서 돈의 노예가 되어가는 사람들에게 대한 증오와 멸시의 감정을 표시하였다.

천하를 돌아다니되 모두 너를 환영하여
나라, 집안 흥하게 하니 그 세력 가볍지 않다
갔다가는 다시 오고 왔다가는 다시 가며
산 사람을 능히 죽이고 죽은 사람은 능히 살린다
아무리 장사라도 이게 없으면 종시 힘을 못쓰고
바보라도 이게 있으면 반드시 이름을 떨치니
부자는 잃을가 두려워하고 빈자는 얻으려 애써
몇천 몇만 사람이 이속에서 늙어가나

류창한도 시 《느낌》에서 《돈이라는 친구는 인간을 쥐락펴락/의기도 문장도 가랑잎 여기듯 하네》라고 함으로써 19세기에 들어와서 황금-돈의 지위가 점차 높아지고 돈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는 자본주의적 관계가 확립되어가던 봉건말기의 현실을 민감하게 보여주었다.

이 시기에는 돈을 자기들의 향락과 치부의 수단으로 삼으며 인민들을 못살게 구는 착취자들과 화폐관계가 빚어낸 사회악을 비판한 새로운 주제의 시작품들도 적지 않게 창작되었다.

평민시인 조수삼은 시초 《북행백절》의 《부계에서》에서는 관청에서 조세를 제정된 날자에 받지 않고 백성들이 물겠다 하여도 도리어 다음해 여름에 받겠다고 하며 받지 않다가 3~5할의 리자를 덧붙여 받아들인다고 폭로하였다.

김려는 자본주의적상품화폐관계가 점차 발전해가던 시대적흐름을 타고 돈에 환장이 되어 갇은 부정과 협잡의 방법으로 인민들의 돈을 빨아내어 리속을 채우고 부화타락한 생활을 일삼는 조운선(조세를 실어나르는 배)주인의 간사한 속내를 까밝힌 시 《선주나리》를 남기었다.

또한 온갖 봉건적구속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생활에 대한 도시주민들의 지향을 반영한 작품들에서도 나타났다.

평민들이 창작한 시조들에 남녀간의 사랑을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로골적으로 노래한 련정주제의 작품들과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연을 벗삼아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려는 호방하고 락천적인 생활태도를 보여준 작품들이 많이 들어있었다는 사실과 도시주민들속에서 널리 불리워진 《잡가》들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농후하였던 사실은 평민들의 시가문학에서 개성의 자유에 대한 지향이 중요한 주제분야를 이루고있었다는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특히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한 련정주제의 작품들은 봉건유교도덕에 대한 비판을 전제로 한 작품들로서 량반들의 시가문학과 다른 평민시가문학의 계급적성격과 근대적지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의 하나로 된다고 할수 있다.

평민시인들의 련정주제의 시조들은 도시주민들의 자유로운 사랑에 대한 지향을 로골적으로, 개방적으로 노래하고있는 특성도 가지고있다.

사설시조 《바둑이 검둥이...》와 《한자쓰고 눈물지고...》, 《모시를 이리저리 삼아...》 등 많은 평민시조작품들에서는 절절하면서도 애뜻한 사랑의 감정을 생활과 밀접히 련관되어 있는 구체적인 생활소재에 의탁하여 소박하면서도 진실하게 노래하고있다. 이러한 작품들에서 드러나는 자유분방하고 개방적인 도시사람들의 련정생활에 대한 시적정서는 량반문인들의 고루하고 폐쇄적인 생활정서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봉건말기의 변화되어가는 사회현실을 반영한 시가문학작품들은 사상정서적내용의 측면에서 새로운 경제관계의 변화와 그에 따르는 인간들의 지향세계, 시대적지향을 민감하게 반영한것으로 하여 근대사회에 이행하는 과도적단계의 특성을 뚜렷이 나타내었다.